

한울 타리

WINTER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48 No 4 2018. 12. 30
편집: 홍보위원회

한울타리 편집팀 김한나 배광현 정유미 정은아 최재원 윤경문 목사

권두언

이영길 목사

올해의 결산?

오래 전 어느 교우님의 말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교우님은 생애를 마감할 때 자신이 저축해 놓은 것을 다 쓰고 은행 통장에 0 밸런스가 된 채로 하늘나라에 가는게 마음의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0밸런스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갈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살이 조금만 하면 금방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모릅니다. 1년 후일지 언제가 될지... 게다가 인생 살이를 해 보면 저축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1년의 삶을 결산해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당한 여러가지 고통과 고난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으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든 아니면 하늘나라에서든...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인해서...



65주년 기념 제7회 한국 문화 축제 성황리에 마쳐

준비위원장 김영범 장로

지난 11월 3일 성황리에 한국 문화 축제를 마쳤습니다. 65주년 행사 준비 위원회 (위원장: 김영범 장로)의 발족 이후 위원들은 한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하여 매주일 아침 10시에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며 수 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400명 이상의 관중 동원, 많은 관중의 좋은 반응, 정성 담긴 훌륭한 음식 준비를 통한 한국 음식 체험, 한국 문화 체험 등을 통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향후에 더 큰 기대와 발전 가능성을 남긴 훌륭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두 손바닥이 만드는 박수소리”라는 주제로 2018년 11월 3일에 보스톤한인교회 주최로 ‘제7회 한국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식 시식 (5:30 - 7:00 pm)과 콘서트 (7:00 - 8:30 pm) 두 가지 이벤트로 나누어진 이번 행사에 브루클라인과 인근 마을 주민들, 그리고 보스톤 지역의 한인들도 초청하였습니다. 물론 두 이벤트 모두 보스톤한인교회 성도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아름다운 보스톤 늦가을의 쌀쌀함과 잘 어울리는 보스톤 한국 문화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제의 주제는 “두 손바닥이 만드는 박수 소리”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금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추는 여러 손들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두 손바닥이 만나는 것은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것이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나누고, 전통혼례의 모습을 보고, 시를 낭송하며, 뛰어난 음악인들의 연주를 같이 들으며 손을 잡고 박수를 치며 함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도연(가야금), 가민(피리, 태평소, 생황), 조유미(소프라노) 및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뮤지션들의 앙상블이 한국 문화의 전통과 그 앞으로의 열린 모습을 감동적으로 모든 관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 체험 후 음악회 시작 전에 지하층에서는 K-Pop 배경 음악 하에 한복 입어 보기 체험, 제기차기 그리고 공기 놀이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보스톤한인교회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교회로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문화 및 교육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영길 담임 목사님도 문화제가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을 전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환영하고 여러 문화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이며, 또한 그동안 우리를 항상 환영해 준 커뮤니티에 보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고 보스톤한인교회 구성원 한명 한명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보스톤의 최고 한인 문화 축제로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행사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준비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예술 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예배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주님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10, 11, 12월 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렸습니다. 10월 7일 세계성찬주일에는 성찬식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11월 4, 11일 주일에는 청지기 헌신예배와 부부청년부 헌신예배를, 11월 18일에는 추수감사주일/창립65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12월 2일부터 대강절을 맞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며, 12월 23일은 성례식과 함께 성탄주일예배를 드리고, 24일에는 성탄이브 축하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학교와 찬양대가 수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한마디의 기도에서, 혹은 가슴을 울리는 한 소절의 찬양에서, 영혼을 울리는 한 절의 말씀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찬양대, 방송팀, 통역팀, 찬양팀, 슬라이드 제작팀, 예배위원들, 성찬준비위원들 등)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이프 오르간 수리

올해 계속해서 진행되는 파이프 오르간의 대대적인 수리는 9월에 Swell and Great wind supply reservoirs 리빌딩을 했고, 10월에 power switch, air filter, static reservoir 등을 수리하고 우선적을 시급한 19개의 chest valves를 re-leather했고, exterior magnet 설치했습니다. 11월에 파이프 튜닝을 하고, 12월초에 Great Chamber에 있는 2개의 작은 chest를 떼어 공방에서 electro-magnets의 mechanical problems고치고 주요 valves를 수리했습니다.

본당 강단 전구교체

10월 20일/28일에 본당 강단 천장에 설치된 Spotlight LED를 같은 전기로 밝기는 3배로 업그레이드된 전구로 교체하는 작업을 건물위원회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나게 높은 사다리를 타고 천장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신 이정규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그 동안 회중석보다 어두웠던 강단과 무대가 환해지면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모습이 환하게 빛나고, 또 무대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더욱 뚜렷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24일 성탄 이브 축하예배 때도 찬양을 드리는 주일학교와 찬양대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제직회

12월 8일 토요일에는 많은 제직들(집사/권사/장로)이 모여서 지난 1년간의 교회생활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6시반에 교인들이 potluck으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눈 후, 다른 제직들이 쉬며 뒷정리를 하는 동안 집사회는 총회를 가졌고, 이어서 찬양과 함께 제직회로 모였습니다. 제직회는 지난 일 년간겨자씨를 뿌리는 공동체로 살았던 삶을 돌아보는 이영길 목사님의 말씀과 동영상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회 위원장 장로님들과 집사회의 보고가 있었고, 기타 건의 시간에는 예배 후 친교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시는 여선교회 집사님들의 도움 요청이 있었습니다. 1년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제직들이 나눔을 통해 숨어있던 열매를 확인하고, 서로 격려 받고 축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육3부 위원회

소그룹 성경공부 연말 행사 위원장 방경남 장로

소그룹 성경 공부 연말 행사가 대강절 둘째 주일 (12월9일)에 ECC Community Hall에서 가졌습니다. 이재익 집사님이 사회를 맡으시고, 이영길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소그룹 7반과 강의식 1반의 각반 소개와 발표 및 간증으로 은혜로운 시간의 모임이었습니다.

요한반 (인도자: 방경남 장로)의 공경희 권사님의 믿음생활의 시작과 부군 장로님의 어려움 삶을 신앙으로 극복하신 아름다운 고백은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반 (인도자: 이재익 집사)은 반의 어른이신 김문소 장로님을 위주로 한 반원들의 합창은 은혜로웠습니다.

베드로반 (인도자: 권복태 장로)의 윤헌자 집사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에 오신 간증 이야기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몽클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반 (인도자: 김동숙 집사)의 반원들의 율동과 찬양은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위트와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안드레반 (인도자: 박신영 장로)은 부인도자이신 김영순 집사의 리드로 찬양 (손을 높이 들고) 과 율동 line dance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모두가 함께 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빌립반 (인도자: 노시일 집사) 은 새로 인도를 받으셨고, 그 동안 인도를 맡아 주셨던 이선영 장로와 반원들과 함께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부부 청년반(인도자: 한문수 장로) 은 반원들의 모임 친교를 동영상에 담아 보여주셨는데, 반원들의 서로 섬김과 나눔, 그리고 젊은 가정의 진지한 신앙의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강의식 반 끝으로 이요한 목사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강의식 반 또한 소그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에 올해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각 소그룹 반원들 모두가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로 시작하는 내년도 각반의 공동체 모임을 통해 서로 나누고, 섬기고, 배우며, 전하는 귀한 말씀공동체가 되기를 서로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 드립니다. 보스톤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내년에는 더욱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65주년 기념 제6회 전교인 탁구 대회

교인위원장 이문영 장로

탁구 동우회장 권복태 장로

지난 10월28일 오후, 제6회 전교인 탁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마치 겨자씨를 뿌린 것처럼 몇몇 사람의 동호인으로 시작되었던 작은 모임이, 이제 전교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본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벌써 6회째를 치르게 되었고, 또 해마다 참가인원과 경기 내용이 풍성해져서, Sunflower 주일학교로부터 상록기도회 어른들까지 그야말로 삼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잔치마당으로 발전되었음은, 그 모든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많은 손길들과 더불어 물질과 은사로 후원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탁구동우회는 본 교회 은사공동체로서 오직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래서 주신 여러 모양의 도움은 물질뿐만 아니라 든든한 후원인으로 저희에게 다가오며 큰 힘이 됩니다.

참가 인원은 2016년 63명, 2017년 75 명에서 이번 해에는 10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입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목	우승	준우승
남자단식	양원재	남수용
여자단식	김은지	윤만강
중고등/청년부 단식	기현석	심상길
일반복식	김수영/양원재	남수용/신순균
Sunflower 단식	신인후	김하은
학부모/자녀 복식	황동준/황은하	구현우/구재현

남자 단식은 남수용 집사가 박빙의 경기를 펼치며 분투하였으나, 아쉽게도 전년도 챔피언 양원재 성도를 꺾지 못했고, 여자단식은 신진 김은지 자매가 전년도 챔피언 윤만강 권사를 역시 마지막 set까지 가는 접전 끝에 꺾으므로 우승컵을 물려주어야 했으며, 학부모/자녀 복식은 전체 경기 중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었는데 황동준/황은하 집사 가정이 우승을 차지 만장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도 남자단식을 제외하고 우승자가 모두 바뀌는 이번들을 만들어 내었고 특별히 Sunflower주일학교와 학부모/자녀 복식 종목의 참여도가 높아 늦은 저녁시간까지 뜨거운 열기를 뽐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대회를 진행중에 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에서 관심있게 문의해 왔기에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초청할 계획입니다.

당일 참관하신 분들의 소감을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그 어느때 보다 열전이 벌어진 탁구 경기..., 거의 올림픽 수준의 탁구시합을 보는 것 같아서 즐거웠고,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벌이는 탁구경기도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공을 가지고 신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저녁 7시가 다 될 때까지 장장 5 -6 시간을 한자리에 머물게 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며 놀라기도 했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실력자들의 진검 승부를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게임도 있어, 참여하는 재미와 관람하는 재미가 골고루 있어 좋았습니다”

“너무도 재미있고, 또 성도의 따뜻한 교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탁구동우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부터 친교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이웃의 관심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모시고 오셔서 함께 운동하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을 통해서도 사랑의 역사를 일구기 원하시는 예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며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권복태 (c) (781)408-9430

남수용 (c) (617)710-4797

양원재 (c) (310)728-0093



상록 기도회

회장 김형범 장로

Merry Christmas!

이제야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로 접어든 지 보름이 지
난다. 올 한 해도 우리 상록기도회에 많은 협조와 봉사를
해 주신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0월 28일 (주일)의 월례회에서는 원래 의도하였던 대로 성경 본문은 정하지 않고 말씀에 바탕으로 하
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수필식으로 펼쳐 나간 중고등부 교역자 구현우 전도사에게 고마움을 드린다.
손자(3세대)가 할머니(1세대)에게 말해 드리는 이야기를 ‘궁수, 활,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회원들
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눈높이에서 하였고 또 흐뭇하게 들었다. 이 날 음식은 진경섭/배정원 집사
부부가 새로 가입한 기념과 10월 달에 생신이 있는 배정원 집사를 위하여 푸짐하게 마련하여서 같이 즐
기며 축하하였다.

11월 25일 (주일)의 월례회는 1부 순서가 ECC 채플에서 해바라기 주일학교가 상록기도회와 함께 하는
겨자씨 축제였다. 어린이들이 2달 이상 준비하여 한글로 쓴 카드와 bookmark, 브로치 등을 우리에게 선
물로 주었고, 우리는 chocolate를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주었다. 노래 부르기 순서에서는 우리 한국
의 전통 민요 ‘아리랑’을 처음에는 어린이들만이, 후반에서는 김수영 목사의 신호로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르는 3세대가 어울린 화목한 시간을 가졌다. 나는 인사말에서 ‘여러 어린이들은 아리랑에 담겨 있
는 우리 배달 민족의 한, 슬픔, 눈물, 괴로움, 외로움 등을 이겨 나가며 미래의 3세대는 기쁨, 즐거움, 웃
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어린이에게 믿음뿐 아니라 한글도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이런
예쁜 아들, 딸을 낳아 주신 엄마, 아빠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끝을 맺었다. 이 날 2부 월례회의 음식은 주
풍실 권사가 마련하여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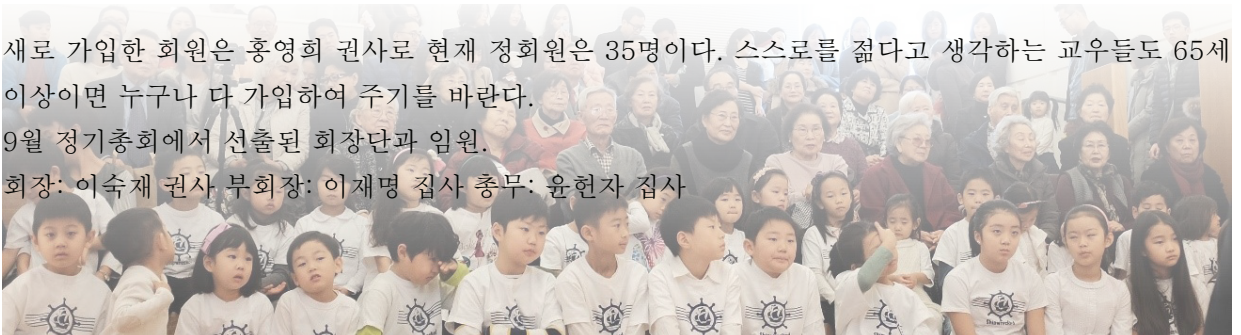
11월의 ‘쉐마의 밤’에는 우리 회원 5분이 순서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은혜를 나누었다.

12월 30일 (주일)에는 송년 월례회를 가진다. 김화옥 집사의 ‘글씨로 나타난 예수’라는 제목의 담화가 발
표된다. 이날 음식은 주정대 집사의 팔순 생신을 한 달, 아니 1년을 앞당겨 부인 이 상자 권사가 마련한다.

새로 가입한 회원은 홍영희 권사로 현재 정회원은 35명이다.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는 교우들도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입하여 주기를 바란다.

9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단과 임원.

회장: 이숙재 권사 부회장: 이재명 집사 총무: 윤헌자 집사



권사회

회장 신미송권사

약간의 걱정속에 시작된 1년의 회장임무를 마치고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권사회의 주된 사업인 증보기도 외 또 하나의 주요 사업인 식사대접이 10월 이후에 세번이나 몰리는 바람에 같이 준비해 주셨던 권사님들도 덩달아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물질로, 봉사로, 기도로 함께 해 주셨던 권사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함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곤란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행사들을 마치고 온 했습니다.

10월7일에는 초.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한 식사대접으로 김밥, 잡채, 오뎅국 및 과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늘 어린이 학생들을 위하여 애쓰는 교사들의 수고로움에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10월 14일에는 청년부와 Youth 그룹을 위한 식사준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2일에는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역자 및 가족, 찬양 인도팀과 가족들까지 60여명의 대식구가 즐거이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워하시는 많은 분들의 말씀에, 준비할 때의 피로가 싸악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찬을 준비할 때마다 권사님들의 음식 도네이션으로 풍성한 상을 차릴 수 있었고,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늘 함께 도와주시는 권사님들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12월16일 총회에서는 내년도 새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 김영미 부회장: 서명숙

회계: 김정림

금년에는 우리 권사회에 새로이 임직 받는 분들이 안 계셔서 일꾼의 고갈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권사님들의 임직을 기다립니다. 새해에는 건강한 몸으로 권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기도 드립니다. 우리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집사회

회장 이재익 집사

1.가을 대청소 보고서

목적: 어머니 교회이자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몸 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보스톤한인교회 교우들이 깨끗하고 향기로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번에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날짜 및 시간: 10/20, 토요일 @13:00 - 16:30

이번 가을 대청소에는 총 83명 (당일 72 + 다음날 11)명이 참석하여 다 함께 주님의 몸 된 우리 어머니 교회를 깨끗이 하였습니다. 특히 목사님 4분, 장로님 5분, 그리고 각 구역과 부서에서 나오셔서 힘을 다해 청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잡채를 준비해 주셔서 청소 때 힘을 내게 해주신 권사회께 (이숙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 가을 대청소를 마치며..

봄청소때와 마찬가지로 80명이 넘는 교우들과 우리 어머니 교회를 ‘함께’ 청소하고 나서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며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느낍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깨끗해야 할 성전인데...라는 도전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 교회인 보스톤한인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전교인이 함께 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청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담당하여 청소하여 주시고, 또 다른 구역도 함께 청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Gateway Church 방문

작년 가을에 열렸던 하나 콘서트(Hana Concert)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케냐 이민자들이 중심이 된 개척교회인 Gateway Presbyterian Church of Boston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였습니다. 당시 콘서트를 기획하는 단계에 청년부 회장이었던 방수영 형제와 함께 Gateway Church를 방문하여 담임을 맡고 계신 Lawrence Mbagara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Mbagara 목사님 고국 케냐에서 목회자로 은퇴하신 후 더 섬기기 위해 보스톤의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그랬던 것처럼 Gateway Church도 다른 교회(Pilgrim Presbyterian Church)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기쁨으로 섬기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콘서트를 여러 성도님들의 성원 가운데 잘 마쳤고 무엇보다 준비했던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Gateway Church와 Mbagara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지 궁금하던 차에 윤경문 목사님의 도움으로 집사회와 청년부 일부가 10월 28일 그곳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침 그 주일은 건물주인 Pilgrim Church와 세입자인 Gateway Church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두 교회 모두 우리 교회와 같은 노회 소속의 PCUSA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Boston 노회 소속인 3교회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의 준비 및 진행은 Pilgrim 교회가, 설교는 Gateway Church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들과 청년들은 특송을 하였습니다. 작은 수가 모였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큰 은혜가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만찬을 했는데 케냐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우리 집사회도 한국음식으로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식사의 교제 가운데에도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에 참여한 집사들과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같은 노회 소속의 다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2018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를 다녀온 후

박선영 집사

2018년도의 가을은 개인적으로 여느 해의 가을보다도 마음이 풍성하면서도 많은 도전을 받은 잊지 못할 가을이었습니다. 2018년도를 마무리해가는 12월의 한 자락에서,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7년간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2018년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변화 속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한해였습니다.

처음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리더인가?”에 관한 광고를 듣는 순간,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참석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를 듣고 난 1주일이 지난 후에야 저는 남편에게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을 건네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첫마디는 “당신이 리더도 아닌데 거기는 왜 갈려고 하는데?” 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맞아. 나는 리더는 아니야.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가보고 싶어” 이었습니다. 그 당시 개인적으로는 그곳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박 3일간의 컨퍼런스를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종종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실수를 범하기 일쑤인 거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의 범위안에서의 ‘리더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리더를 생각하면 지휘자가 떠올랐었습니다. 팀을 이끄는 사람,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 하지만 강연을 통해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의 모습은 헌신과 섬김이 있는 청지기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손수 시범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주제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작게는 가족 안에서부터 크게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서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리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크고 깊으신 계획은 알 수 없으나, 현재 지금의 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섬김을 행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2018년도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는 미국장로교에 속한 한인 남.녀

선교회(NKPM & NKPW)가 공동 주관하여, 9월 27일-29일에 뉴저지 찬양교회에서, “리더인가” 라는 주제로 임무영 목사를 주제강사로 모시고 가졌다)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 한정인 집사

10월 21일 청소의 날.

강혜정, 김희현, 김연희, 한정인, 노윤경, 전현임, 곽서영 집사님들의 참석으로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부엌 청소를 했다. 몇 달 전부터 과연 몇명이나 참석할지 고민하며 여름을 지난 것 같다. 언제나 큰일에 서투른 나는 손보다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교회 여러 곳에서 맡은 바 일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부엌으로 모여들었다.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부엌이 낯설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젠 1부 다과 준비도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부엌에 마음이 익어간다. 교회 부엌을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얻어 배운 음식 할 때 알아 두어야 할 레시피들을 쉽게 터득할 수 있어 좋고 또한 가족들만 기준으로 하다가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노하우도 배우게 되었다. 거기에 고기 재울 때 쓰는 황금비율 3:2.5:2:1 간장: 설탕: 요리 술: 참기름. 이건 부엌에서 함께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린 혜택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여 여기에 고추장과 고추가루를 첨가하면 제육볶음까지도 완성이다. 물론 본 양념 마늘과 양파, 파는 말이 필요 없겠지만 말이다. 이걸 알고나서 고기요리가 어느덧 재미있어졌다. 심지어는 남편의 칭찬도 들을 만큼 요리솜씨가 몰라보게 향상되어갔다. 이것이 모두 부족한 내가 회장이 되어 한 해 동안 얻은 큰 수확이었음을 고백한다.

어느덧 가을청소를 하며 한 해가 저문다. 내년에도 교회 구석 구석에서 봉사를 하며 많은 분들과 만나기를 소망해본다.

지난 12월 2일에는 2018년도의 사역을 결산하며 내년도를 위한 신임 회장단의 선출과 친교의 시간이 있었다.

2019년도를 맞아 수고해 주실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곽서영 부회장: 김희현
총무: 이성희 회계: 윤선미
서기: 이정임



회장 최정우 집사

11월 3일, 토요일. 보스톤의 날씨는 차고 흐렸습니다. 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지더니 거센 바람이 비구름을 몰고와 결국 겨울 코트를 꺼내 입고서야 교회로 향했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 65주년, 한국 문화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예약한 인원이 벌써 3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하는 음식의 양을 늘이고 나니, 곳은 날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보러 올지, 결국 우리끼리의 행사가 되고 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많은 손길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 주신 여선교회 회원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며 하나 둘 주방에 들어서기 시작한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과 권사님, 장로님들의 얼굴에서도 흥분과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재료들을 썰고, 볶고, 그릇에 담는 분주한 손길 중에도 부엌 안에선 내내 다정한 웃음과 이야기 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수고로 시간에 맞게 음식 준비를 마치고 세팅을 시작하니 행사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인데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이 하나 둘 친교실 앞에 모여 들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마치 영화 속 빠른 화면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4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전통 문화를 보고 즐긴 성대한 축제가 감사와 은혜 가운데 치루어 졌습니다.

이방인의 교회, 보스톤한인교회가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고향을 떠난 이들이 잠시 머물게 된 자리에서 나눔을 시작할 때, 그 곳이 결국엔 또 하나의 고향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 축제는 우리가 떠난 고향, 고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고향임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결국 우리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상을 향해 내미는 다정한 손. 한국 문화 축제는 보스톤한인교회가 지역 사회를 향해 내미는 다정한 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뜻밖의 행사를 치르며 회장으로서는 미흡한 점도 많았고, 준비에 빈틈이 없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부족함에도 동역해 주시고 흔쾌히 자원하여 도우신 분들이 있어서 아쉬움 보다는 뿌듯함으로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에스더 여선교회는 연말 총회를 열고 새해를 이끌어갈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신임 회장단: 회장: 정은아

부회장: 김은정

회계: 채주영

이 지면을 빌어 새 에스더 임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2018년도 에스더 여선교회를 함께 섬겨주신 임원들과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부 청년부

회장 신준섭/박예리 집사
보고 박예리 집사

부부청년부는 보스턴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40세 이하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2018년 12월 등록가정 기준 약 40가정이 소속되어 있으며, 매주 주일 예배 후 꾸준히 약 20가정이 모여,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며, 식사 후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청에 새로운 지체들이 많이 오셔서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극유/이수경, 박민제/김은지, 김세훈/이채원, 최경윤/배윤희, 김학주/강다애, 임한빈/성보람, 유자형/박진아, 김봉성/김지혜 등 청년 1,2부에서 결혼 후 부부청년부로 오신 가정, 그리고 타주 혹은 한국에서 학업 및 직장의 이유로 이주해오신 분들 등 다양한 가정들이 새로 오셨습니다. 모두들 보스턴한인교회 및 부부청년부 공동체에 잘 정착하셔서 더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9/30 주일 모임에 담임 목사님 이신 이영길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떠남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부부청년부에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많아, 평소 본당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다들 담임목사님의 방문 및 말씀시간을 통해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에는 부부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 예배 속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교우님들께 부부청년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헌신 예배 후 총회를 통해 임원단(회장 신준섭/박예리, 부회장 선혁/이성지 그리고 총무 심상길/심세희)을 선출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부청년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

담당교역자: 윤경문 목사, 김수영 목사

그루터기 청년 2부는 10월 14일(주일) 청년 1부와 함께 청년부 헌신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새벽 이슬같은 젊은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힘찬 찬양과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소개와 한 해 동안 청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점심식사를 베풀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1월 추수 감사절에는 김유진 교우가 집을 오픈해주어서, 다 함께 모여, potluck으로 추수감사절 저녁을 나누며, 한 해의 감사 제목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첫 주에는 '신앙의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2부 한문수 장로님을 모시고, 신앙과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을 들으며 젊은이와의 대화를 통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사랑으로 많은 준비로 귀한 경험 나눠주신 한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찬양 예배 시간을, 주일에는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 동안 성경공부 리더로서 유보라, 정운원 교우가 섬겨주었는데, 이번 12월 유보라 자매가 한국에서 직업을 갖게 되어 귀국하였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12월 16일(주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졌습니다. 강석우 형제가 크리스마스 파티 인도를 맡아서 연상 게임 등 재미있는 게임을 열심히 준비하여 주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여 양키 스왑을 하며,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를 위해 준비해 준 회장단과 강석우 형제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담당교역자 구현우 전도사
보고 안성민 교사

9월 2일 시작으로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하며 새로운 학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께서 들어오신 9학년을 맡으시게 된 June (김주은) 선생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학기 중고등부 주제 성경구절은 미가서 6:8 절입니다.

그에 걸맞게 9월의 주제는 정의였고, 학생들은 사회적인 정의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책임 등등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6학년 학생들도 9월에 진급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10월의 Lock-in의 주제는 Open House 였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중고등부의 문화에 환영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때 한 활동들은 거의 다 학생들이 지어내고 MC를 했으며, 그만큼 더 재미있고 좋은 Lock-in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Lock-in의 밤에는 찬양과 기도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찬양팀이 보여준 리더십 덕분에 모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10월의 주제는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Lock-in에서의 팀 활동들이 이것을 체험 했으리라 믿습니다.

11월은 Arise Praise Night이 있었습니다. Arise라는 보스턴 근교의 한인교회 단체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Arise Flag Football과 Arise Praise Night을 매년 하는데, 이번해에는 날씨로 인해 Flag Football을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Praise Night은 다른 교회 중고등부랑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1월의 주제는 겸손과 동행이었습니다. 이에 맞게 다른 교회 학생들과 만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 있었다는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의 주제는 성탄,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를 맞이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갖고 12월 1일에 올해 마지막 Praise Night을 가졌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가을 학기 마지막 달을 영적으로 충진을 해 힘내며 끝내자는 마음으로 가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성탄 이브 축하 예배를 위해 성경공부 대신 무대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날 예배 전에는 친교를 위한 선물 교환(Yankee Swap)과 저녁식사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잘 끝내고 다음 해를 하나님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겨자씨 축제] 소식

담당교역자 김수영 목사
보고 박해인 교사



‘겨자씨를 함께 심는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한 해를 보내며 해바라기 주일학교는 지난 봄 ‘겨자씨 구제 사역’을 진행하여 뉴멕시코에 있는 원주민 어린이들에게 선물상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나눔의 기쁨을 맛보고 원주민 아이들에게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심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이번 가을, Thanksgiving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어르신들인 상록기도회원들과 권사회원들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겨자씨 축제’라는 이름으로 작은 선물과 음악의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온전히 아이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주일학교 목사님,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고 회의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까 결정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선물 만들기와 감사 편지 쓰기, 노래 연습이 차곡차곡 진행되었지요. 짧은 시간 노래와 악기 연주가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의 축제 준비 과정 동영상 보면서 어찌면 아이들이 준비하던 과정을 나누는 것이 겨자씨 축제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께서 많이들 오실 수 있을까, 아이들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약속대로 모일 수 있을까, 혹여 우리가 준비한 것이 너무 약소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고 체 시간엔 하얀 티셔츠를 입고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간혹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예배당 뒷편과 계단을 짝 채워주신 학부모님들의 모습에 걱정은 사라지고 이내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이 날 ECC 채플은 어린이와 부모님, 그리고 상록기도회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삼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사랑을 노래하고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는 삼세대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몇몇분께서는 편지를 쓴 아이를 수소문해 전화를 해주시고 답장을 보내주시기도 했다는 훈훈한 뒷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이번 겨자씨 축제는 아이들과 함께 감사한 것들을 되새겨 보고 막연했던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나누면 그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도 새삼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 무엇보다 존재 자체가 사랑인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도 사순절 묵상집 발간을 위하여...



매년 사순절이 되면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손수 쓰신 글과 기도문으로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왔습니다. 2019년도에도 이 사순절 묵상집을 마련하여, 온 교우님들과 함께 읽으며 아름다운 사순절을 맞고자 합니다.

제의 수요일(2019년 3월 6일) 로 시작 되는 사순절은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와 용서, 절제와 금식, 화해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닦으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교우님이 보내주시는 묵상의 글(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눌 글)은 이 사순절 기간에 귀한 은혜를 온 교우가 함께 누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식은 기도문, 묵상을 위한 에세이, 기도 시 등이며, 분량은 1페이지 정도 (작은 사이즈 책자로 만들 예정임)로 쓰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순절 기간 묵상을 위한 성서 한 구절과 제목을 넣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한 줄로 된 기도로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글 보내실 곳: E-mail: kcblent@gmail.com, 혹은 교회 사무실로 제출
원고 마감: 2019년도 2월 9일 (가능한 한 일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 홍보위원회 & 예배위원회 드림

새교우 환영반

교인 위원회에서는 9월, 10월, 11월에 걸쳐 세번의 새교우 환영반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3회, 10월은 담임목사님의 휴가관계로 2회, 11월은 3회에 걸쳐 모임을 가졌습니다. 새교우 환영반이 마친 후에는 이재일/서영아 교수님 (9월), 김옥식/김경희 장로님 (10월), 황동준/안은신 집사님 (11월) 께서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풍성한 음식과 장소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 10월, 11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학주/김다애 가정은 지난 6월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보스턴에서 정착한 신혼커플입니다. 김학주 교수님은 본 교회 청년 1,2부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화학교사로 일하고 있고, 김다애 교수님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부청년부에 속해 있으며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이은미 가정은 체육교육을 전공한 이주원 교수님께서 BU에서 포스트닥으로 일하게 되어 텍사스에서 지난 여름 이사오셨습니다. 이은미 교수님께서서는 바이올린을 전공하셨습니다. 슬하에는 6개월된 아들 준휘가 있으며, 현재 Needham에 거주 중입니다. 부부청년부 소속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김세훈/이채원 가정은 버클리음대에서 공부하게 된 김세훈 교수님 때문에 보스턴으로 오셨습니다. 이채원 교수님 또한 성악을 전공하셨고 찬양선교단에서 섬기셨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이 곳 보스턴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부부청년부에 속해 있고, 이채원 교수는 2부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일/서영아 교수댁

유자형/박진아 가정은 UNIST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계시는 유자형 교우님의 안식년을 위해 보스톤에 오셨습니다. 두분 다 어린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더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셨던 부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서 보스톤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부부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홍영희 권사께서는 1975년에 도미하여 메릴랜드 주에서 간호사로서 일하시며 40년 넘게 거주하시다가 지난 8월에 자녀가 있는 보스톤으로 오셨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가 집에서 가까워 출석하셨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보스톤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영석/전선우 가정은 최근에 결혼하시고 보스톤한인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셨습니다. 오영석 교우님께서 94년도부터 보스톤한인교회에 출석하셨고 어린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으며 현재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십니다. 전선우 교우님께서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으며, 신앙생활 또한 처음하는 초신자입니다. 두분께서는 현재 중앙 5구역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박민제/김은지 가정은 박민제 교우께서 BU 경영학 박사과정을 위해 보스톤에 오게 되었습니다. 박민제 교우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 기독교 대학을 거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김은지 교우께서는 고등학교 시절 가족 중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대학교 시절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하셨고, 부부청년부와 주일 준비 찬양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봉우/이연희 가정은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게 된 이봉우 교우님 때문에 보스톤에 지난 6월에 오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총신대에서 공부하셨고 일산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셨고 슬하에 두명의 따님이 있으십니다.

Eddie Kim/김영란 가정은 Eddie Kim 교우의 직장이 보스톤으로 옮기게 되면서 15년 넘게 살았던 샌디에고를 떠나 3개월 전 이곳으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영란 교우께서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셨으나 유학생생활 중 Tres Dias를 접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 슬하에는 딸 둘 (벨라, 하이디)이 있으며, 중앙 3구역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김옥식/김경희 장로택



황동준/안은신 집사

이정임 교우님께서는 불교 집안에서 성장하셨으나 미국에 오셔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생 아드님과 10학년 따님과 함께 이곳 보스턴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현재 남편께서는 기리기 아빠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현재 중앙 3구역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최경윤/배윤희 가정은 부부가 함께 MBA 과정을 밟기 위해 지난 여름에 보스턴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최경윤 교우님은 모태신앙으로써 서울에서 어린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두분 다 은행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슬하에는 1살된 아들 온유가 있으며, 현재 부부청년부에 속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김봉성/김지혜 가정은 지난 8월에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김봉성 교우님께서는 현대 중공업에서 산업용으로봇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회사의 지원을 받아 1년간 MIT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 교우님은 고등학교 시절 교회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길 소망하십니다. 보스톤한인교회가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으나 가족적인 분위기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 이웃인 신정옥 집사님 가정과 친해지면서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부부청년부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이민화 가정은 박지훈 교우님께서 MIT에서 포스트닥으로 일하시기 위해 보스턴으로 오셨습니다. 박지훈 교우님께서는 유치원 시절 때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신 어머니를 따라 교회 출석을 하면서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에 조금 소원하게 되었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소망합니다. 현재 중앙3구역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욱 교우님께서는 전에 보스턴에서 거주하셨지만 뉴욕으로 이주하셨다가 최근에 아드님과 함께 생활하기위해 다시 보스턴 지역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서 보스톤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Nashua에 거주하고 계시고 보스톤한인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북서구역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섭/배정원 가정은 35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진경섭 교우님께서는 30년간 우체국에서 일하셨고 녹록치 않았던 이민생활 속에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정원 교우님 또한 한국에서는 교회 출석을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나 미국에 오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민 생활 속에서 신앙이 식을 때 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 2구역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박기태/김현정 가정은 최근 박기태 교우님의 직장때문에 보스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박기태 교우님께서는 우연한 기회로 성당에 한동안 출석을 하였고 현재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 중앙 3구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모습



65주년 기념 제7회 한국 문화 축제



65주년 기념 제7회 한국 문화 축제



제6회 전교인 탁구대회



쉐마의 밤



성탄 음악예배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당목사: 이 영 길



보스톤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